



◇2018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이 6일 정선 하이원팰리스호텔에서 이희종 강원일보사장,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류태호 태백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유재철 정선군의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 허영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황환민 강원지방조달청장,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한형민 강원랜드 부사장,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최돈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고광만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선=신세희기자

# 경영전략 공유 내수침체 돌파구 마련

## 의미와 전망

2018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의 화두는 '중소기업 성장'이었다. 제12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에 이어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주관한 '강원경제인포럼'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상직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 정부는 한국 경제 문제의 본질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재벌 대기업 중심구조로 보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 중소기업도 참여한 경쟁구도를 도입하고, 가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며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나종호 한국강소기업협

회 상임부회장은 중소기업이 더 이상 '작은 기업'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차별화된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나 부회장은 "차별화된 기업(스페셜 기업)은 제품이 서비스를 더해 팔고, 선택과 집중을 하며, 시장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상생협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핵심 고객에게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은 올 상반기 평가가 내수침체, 장대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크게 위축됐던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자부심과 목표의식을 심고, 경제계 각 분야의 역량을 모았다는 평가다.

허영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강원도는 사업체 종사자 중 96%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지역경제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효율적인 지원전략,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강원경제인상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영예의 상으로 탁월한 기술력과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다수의 기업이 발굴됐다"며 "강원도 혁신성장을 이끌고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 강원경제계·기관·단체장 대거 참석 교류의 장

◇2018 강원경제인페스티벌에는 도내 경제 기관·단체장이 대거 찾아와 눈길.

이날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류태호 태백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유재철 정선군의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 최돈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고광만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노정협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장, 김천수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 박승균 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이금산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 이성열 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경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전순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도지회장, 필주란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장, 하영봉 글로벌 CEO클럽 회장, 우철희 강원기업협의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허영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황환민 강원지방조달청장,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안득표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 한형민 강원랜드 부사장, 권기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김기호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이남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주식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이이재 춘천세무서장, 정창훈 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장, 임선형 기술보증기금 춘천지점장, 김은광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최윤석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



## “석박사 고급일자리 확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일자리창출기업상** 손지훈 휴젤(주) 대표집행임원

제12회 강원경제인상 일자리창출기업상을 수상한 손지훈 휴젤(주) 대표집행임원은 “무엇보다 회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에 대해 받는 상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이 영광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휴젤 임직원 및 도내 모든 기업인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춘천의 작은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휴젤은 이제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춘천 1·2공장과 서울에서 3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소 내 3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고용하며 고급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강원대, 한림대, 폴리텍대 등 지역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2012년부터 매년 ‘강원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고, 2014년 강원고용대상과 2016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강원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술연구·개발혁신 올인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

**연구개발상** 양철 성우엔비테크 대표

연구개발상을 수상한 양철 성우엔비테크 대표는 “강원지역에 더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귀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연구개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대회 관계자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철 대표는 “기술연구와 개발 혁신은 기업의 생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한번도 잊지 않았다”며 “성우엔비테크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식품 포장용 기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 큰 포부도 밝혔다. 양 대표는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더 정진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창의적이며, 더 혁신적인 식품용기 개발을 해 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제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갖추고, 수출국도 더 다양화시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강원도 이전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후대에도 이바지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새 건축기술 투자 집중 차별화된 경쟁력 갖출것”

**건설혁신상** 최상순 효창건설 대표

건설혁신상을 수상한 최상순 효창건설 대표의 “노력하는 자만이 새벽을 연다는 사훈을 바탕으로 근면과 성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왔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건설업계 모든 관계자, 고객들, 무엇보다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강원도 건설경기 속에서도 업계 발전을 위해 더 기여하고 헌신하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신기술 교류와 투자, 연구협력을 지속해 기술 전문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투명한 회사경영으로 안팎의 신뢰를 더 쌓아나가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다”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사회공헌사업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 강원일보를 비롯한 모든 대회 관계자분에게 감사드리며, 도건설협회 회원 모든 회원사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